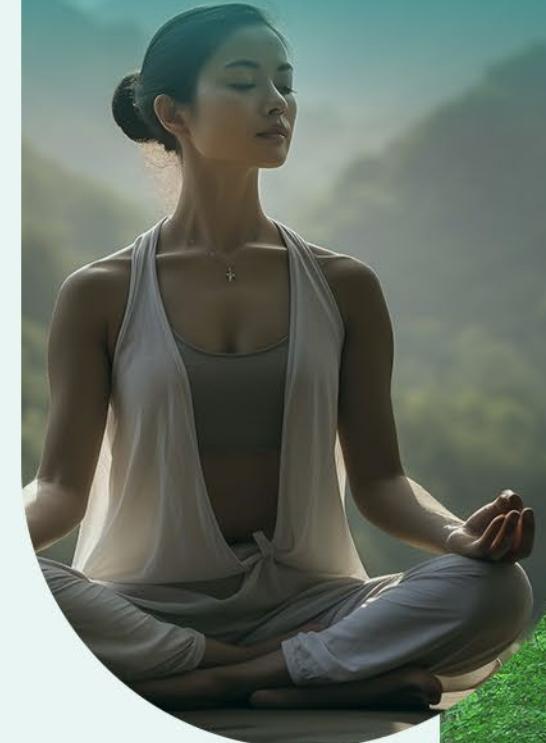


WEEK 04

남성학



학습목표

- I. 남성성기와 여성과 다른 남성의 신체구조와 정신구조에 대하여 알아본다

학습목차

- I. 남성의 심리
- II. 해부학
- III. 성흥분기



1. 남성의 심리

1) 남성의 심리

1) 남성의 심리

✓ 남자의 심리적 속성

- ▶ '세상의 절반은 여성이고 절반은 남성'이다. 만약 '이성을 이해하지 못한다는 것은 세상에 대해 절반만 이해하고 있다는 말'이 된다.
- ▶ 일단 남자의 속성은 대부분의 동물들이 그런것처럼, '건강한 여성을 찾아서 자신의 씨를 뿌려야 한다는 사명감'이 있다. 이른바 '종족보전에 대한 본능'이다.
- ▶ '종족보전에 대한 본능'은 여성에 비해 상당히 '열정적'인데, '모든 지구상의 수컷들에게 나타나는 공통적인 현상'이다.

1) 남성의 심리

✓ 사랑할 때 남성의 3단계의 심적 변화

- (1) 첫번째 : 본능에 입각한 <맹목의 단계>
- (2) 두번째 : <사랑이 싹트는 단계>
- (3) 세번째: <옥시토신>이 관장하는 <믿음의 단계>

1) 남성의 심리

✓ 사랑할 때 남성의 3단계의 심적 변화

(1) 첫번째: 본능에 입각한 <맹목의 단계>

- ‘첫눈에 반해 여성들을 위해서, 모든것을 들어줄 준비가 되어 있는 단계’(테스토스테론: 남성호르몬): 기간: **6개월**
- 예를 들면, 군대에 갈 경우 ‘무모한 탈영’하기도 하고, ‘야수로 돌변’하기도 하기 때문에 이 시기에 남성이 마음에 들지 않아 무리하게 떼어 버릴 경우 자칫 위험
- 그런 열정은 그냥 ‘본능적인 현상’일 뿐이다.
- 여성의 입장에서, 연예할때 6개월 마다 남자를 바꿀 생각이 아니라면, 그냥 선택한 남자의 장점을 보려 노력하고, 또한 그 남자를 이해하며 너의 남자로 만드는 것이 훨씬 더 탁월한 선택이다.
- 이때 ‘남성은 ‘종’이고 여성은 ‘신’이라는 착각’에 빠진다

1) 남성의 심리

✓ 사랑할 때 남성의 3단계의 심적 변화

(2) 두번째: 사랑이 싹트는 단계

- 인간관계에서 기교나 전략 같은 것은, 그다지 큰 도움이 되지 않는다. 오로지 사람을 상대할 때에는 '진실'만이 정답이다. : **기간: 2년반**
- <맹목의 단계>가 그저 '자신의 씨를 퍼뜨리려는 수컷의 본능'이라면 <사랑>은 '보다 인간적인 본능'에 가깝다.
- 남자가 마음에 든다면, 남성의 마음속에서 사랑이 싹틀 수 있도록, '**여성자신의 매력을 보여주는 것도 좋은 방법**'이다.
- 만약 **6개월** 이내에 남성의 마음속에서, 사랑하고픈 생각이 들지 않는다면, 자신의 임무를 다한 순간, 남성의 마음은 떠난다.
- 그래서 '**대부분의 커플이 6개월을 넘기지 못하고**' 헤어지게 되고, '**결혼도 30개월 이내에 해야**'지 오래 사귄다고 잘 되는 것은 아니다.

1) 남성의 심리

✓ 사랑할 때 남성의 3단계의 심적 변화

(2) 두번째: 사랑이 짹트는 단계

- 이 시기도 고작 '2년 반'이면 거의 대부분 소진된다. 다시 말해서, '아무리 상대가 미인이라도 다른 매력을 찾지 못하다면, 2년 반 정도 사귀면 그 여인에게 싫증이 나게 되어 있다는 뜻'이다.
- 이때 행복을 느끼는 호르몬인 <세로토닌>이 소위 '콩깍지를 씌우게 만드는 작용'을 한다고 알려진다.
- 가상적으로, 맹목의 단계에서 임신을 가정할 때, 대략 2년 6개월 정도면 여성 혼자서도 아이들을 키울 수 있기 때문에, 여성이 아이들을 먹여 살릴 수 있을 정도가 되면, 남성은 다시 다른 짹을 찾아 새로운 씨를 뿌리도록, 디자인 된 것이 아닌가, 생각된다.(예전에 결혼제도가 없었을 시절에 대한 가설)

1) 남성의 심리

✓ 사랑할 때 남성의 3단계의 심적 변화

(3) 세번째: 옥시토신이 관장하는 <믿음의 단계>

- '믿음이라는 감정'은 유효기간이 무척 길어서, 한 번 생기게 되면, 거의 죽을 때까지 남아 있게 된다
- '옥시토신'은 '뇌하수체 후엽'에서 분비되는 호르몬으로 '(1) 자궁수축'을 일으키게 하거나 '(2) 모유가 나오는 것을 촉진'하기도 한다는 점에서 <모성 호르몬>으로 알려져 왔다
- <옥시토신>은 '여성에게 가족이라고 하는, 강력한 유대의식을 만들어 함부로 아이를 버리지 않도록 묶어 놓는 역할'을 한다. (여성들은 아기에게 젖을 먹일때 사랑과 유대감을 느낀다) 이것으로 우리는 '신의 섭리'를 느낄 수 있다.

1) 남성의 심리

✓ 사랑할 때 남성의 3단계의 심적 변화

- <테스토스테론(남성호르몬)>이 작용하는 <맹목의 단계>에서는, ‘오로지 자신의 씨를 퍼뜨리려는 충동’이었고, <세로토닌>이 작용하는 <사랑의 단계>에서는, 어린 ‘아이를 보호하기 위한 본능적 메커니즘’ 이었다고 했다.
- 옥시토신은 <가족으로서의 공통의식> 혹은 <유대감>이라고 하는 색다른 감정을 만들게 되는데, 문제는, 이 단계는’ 필수가 아니라, ‘선택적 단계’이라는 것이다.
- 그래서 신은 남성에게 본능에만 충실하도록 디자인했지만, 그 ‘본능을 제어할 수 있는 열쇠는 여성에게’ 좀더 준 것은 아닌지... 가정해 본다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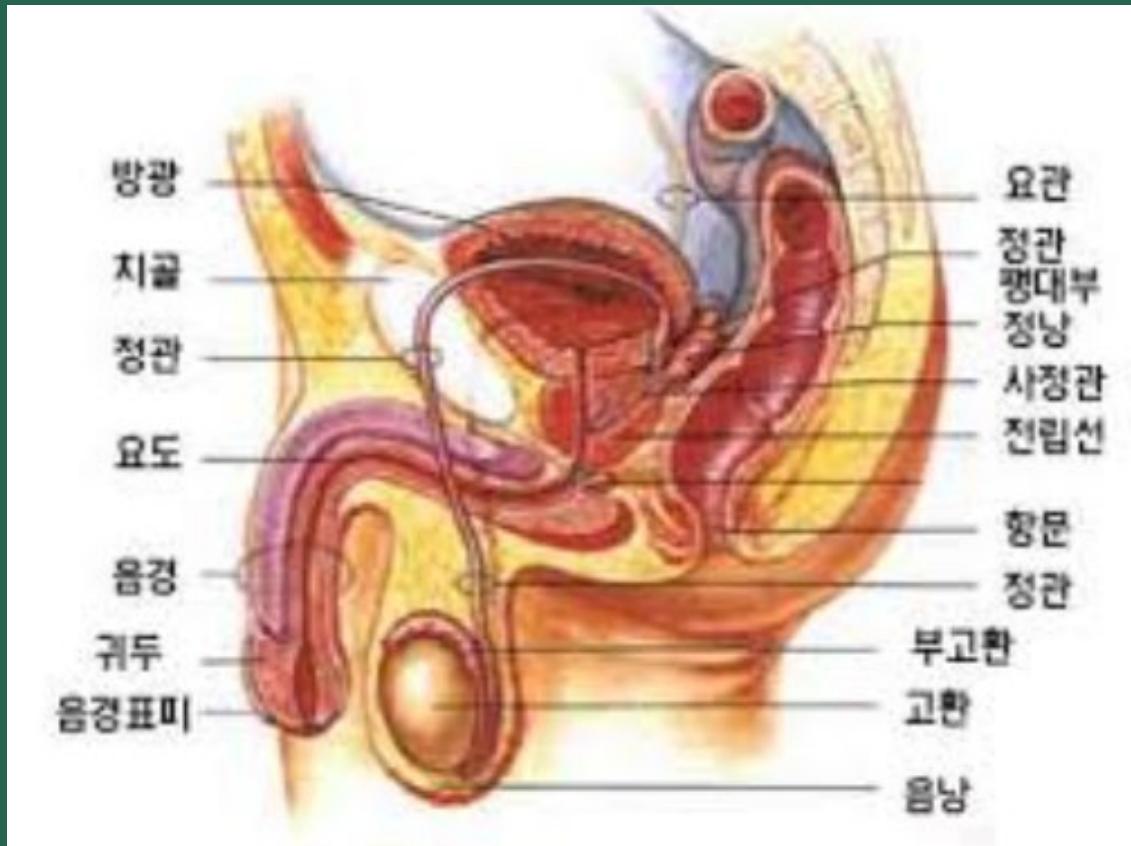
1. 남성의 심리

수업을 마치겠습니다.

2. 해부학

1) 남성의 해부학

1) 해부학



[출처] <https://m.blog.naver.com/hye8064/220329663867>

1) 해부학

남성의 생식기는 외부에서 보이는 '외생식기'와 외부에서 보이지 않는 '내생식기'로 구성되어 있습니다

(1) 외생식기 : 음경(페니스), 음낭(scrotum)

(2) 내 생식기 : 부고환(정소상체), 정관, 정낭, 사정관, 전립선, 요도구선, 요도, 정색



[출처]

<https://m.blog.naver.com/PostView.nhn?blogId=goeun1106&logNo=100190615441&proxyReferer=https%3A%2F%2Fwww.google.com%2F>

1) 해부학

음경(페니스)

- ▶ 남성의 교접기
- ▶ 근육성 및 혈관성 '해면체기관'
- ▶ 기능
 - 남성요도와 그 기능을 공유
 - (1) 소변 배설, (2) 남성호르몬 배출로, (3) 정자 사출

1) 해부학

음경(페니스)

▶ 성감대 : 음경전체

- 귀두, 그 주변과 음경 아래쪽에 있는 얇은 띠 모양의 '음경소대'가 가장 민감
- 음경이 성감을 강렬하게 느끼는 이유 -> '예민한 표피감각'을 가지고 있기 때문
- 이 신경구조는 이미 태아 때에 완성

1) 해부학

음경(페니스)

▶ 성기 크기와 상대의 성만족도는 관계 없음

- 근거: 여자는 '질 입구로부터 약 2~4cm 주변'에 신경세포들이 몰려있어, 이 부위를 자극하게 되면, 성적으로 흥분하고, 오르가슴을 느끼기 때문
- 오히려 일반적으로 길고 큰 페니스보다는, 남성의 굵은 목소리나, 딱 벌어진 넓은 어깨가, 여성들에게 더 성적인 흥분을 일으킨다고 함
- 음경이완 시에, 크기가 다양한 음경도, 일단 발기되면, 그 차이가 없어지는것으로 되어있음
- 백인 - 발기시 평균 17.8cm, 동양인 - 12~15cm

1) 해부학

음경(페니스)

- ▶ '정상적인 성행위에 장애'를 초래하고, '남성불임'의 원인을 일으키는 질환

- ① 발기부전
- ② 심한 포경으로 인한 '사정불능'
- ③ '음경왜소'와 같은 선천적 기형음경
- ④ 사고로 인한 성기 및 척추손상
- ⑤ 기타 성기질환으로 인한 '후천적 기형'

1) 해부학

음낭(Scrotum)

▶ 신체에서 떨어져 아래쪽에 늘어져서 위치

- 체온보다 약 3°C 낮은 온도 유지가 바람직 -> 정자를 보관하고 성숙시키기 위하여

▶ 정자의 이동

- 고환에서 생성 -> 부고환에서 성숙 -> 정관 -> 전립선

1) 해부학

고환과 부고환

▶ 고환

- 1) 남성의 가장 중요한 생식기관
- 2) '정자세포'(정자를 생산하는 공장)와 '남성호르몬'을 생산
- 3) 고환에서 생산된 미숙한 정자세포는, 부고환의 정세관으로 옮겨져 성숙한 정자로 자란다

▶ 부고환

- 1) 약 8백만개에 달하는 '정세관'
- 2) 정자를 '성숙'시키고 '저장'해 두는 창고의 역할
- 3) 고환에서 생산된 정자는, 부고환에서 체액과 섞여서, 정액으로 만들어져, 정관을 통해, 정낭으로 운반된다

1) 해부학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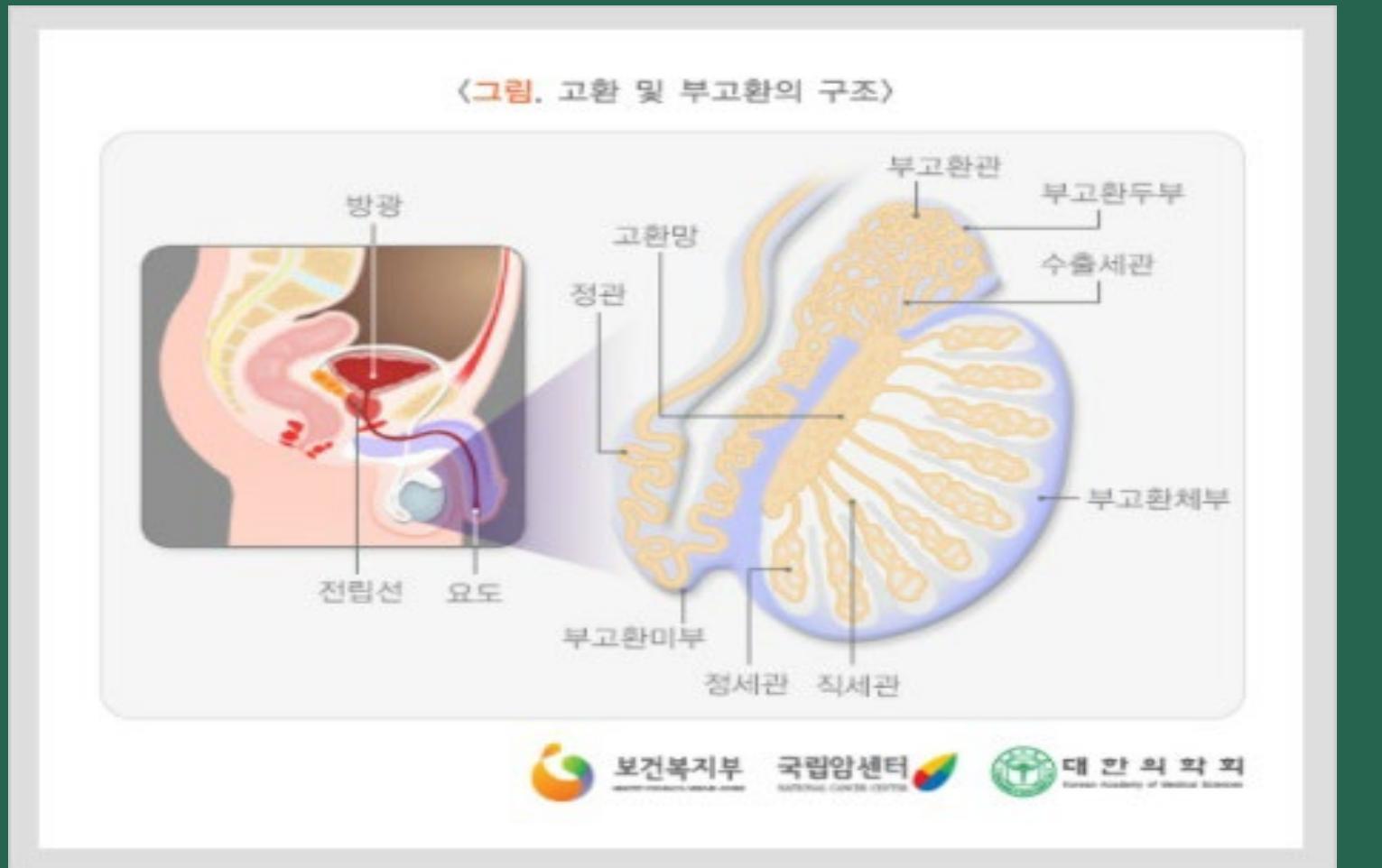
고환과 부고환

▶ 고환 및 부고환의 구조

- '고환(정소라고도 함)'은, 주름살로 되어 있는 음낭 속에 좌우 1개식 들어 있다. 음낭의 주름살은 '라지에터'와 같은 기능을 하며, 추울 때는 수축하고, 더울 때는 축 늘어져서, 고환을 체온보다 약간 저온의 일정한 상태로 유지함으로서, 고환의 기능을 보호하여 준다.
- 고환의 크기는 사람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. $4.0 \times 3.0 \times 2.0\text{cm}$ 이상의 것을 대(大)고환, $2.0 \times 1.0 \times 1.0\text{cm}$ 이하의 것을 소(小)고환이라 한다.
- 부고환은 "베레모"와 같이 고환을 덮어 싸고 있는데, 부고환에서 정관, 정낭으로 연결되어 있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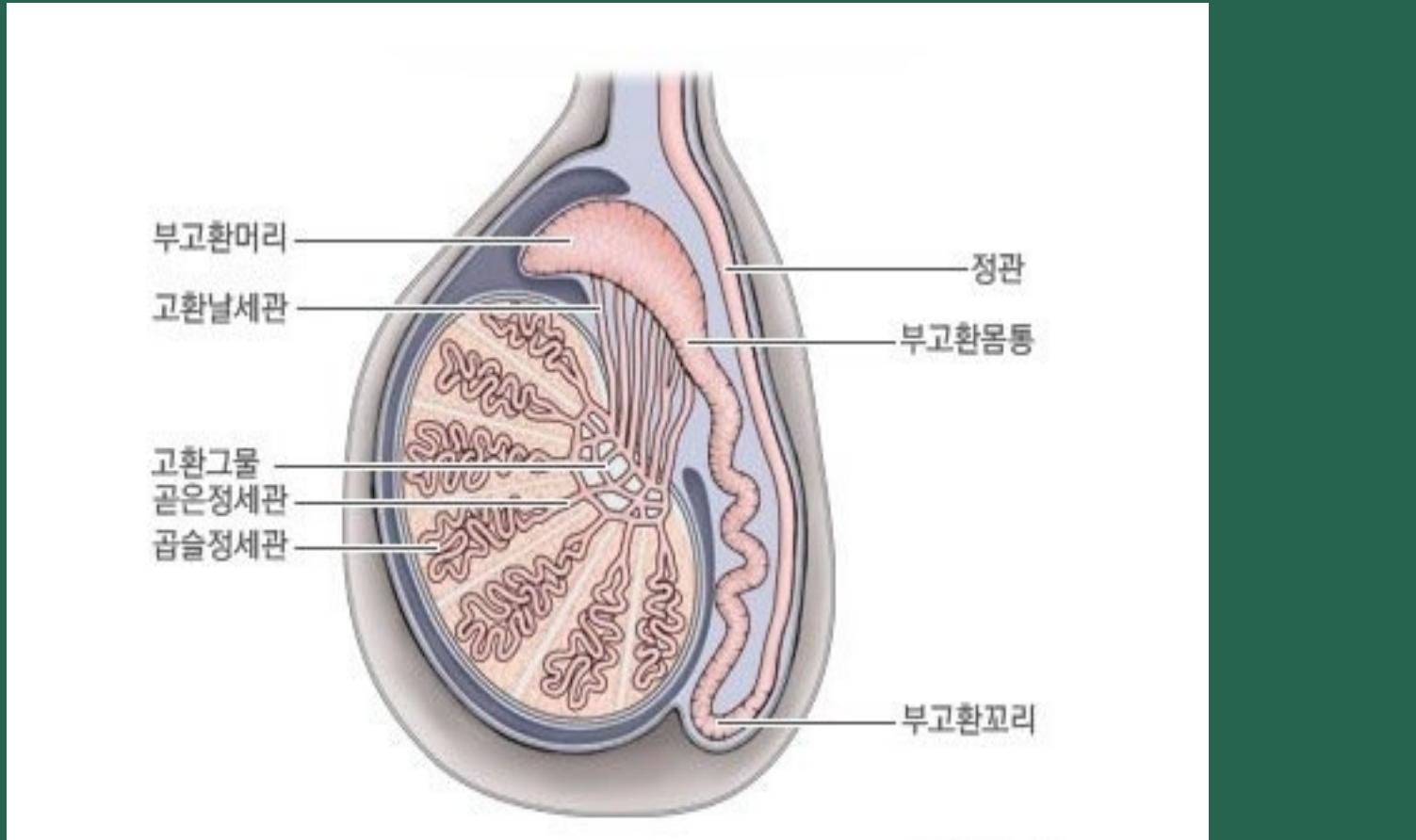
1) 해부학

✓ 고환과 부고환



1) 해부학

✓ 고환과 부고환



[출처]

<https://m.blog.naver.com/PostView.nhn?blogId=withjoyfull&logNo=221051434565&proxyReferer=https%3A%2F%2Fwww.google.com%2F>

1) 해부학

고환과 부고환(발생하기 쉬운 질병)

▶ 고환장애

- ① 잠복고환(정류고환),
- ② 고환섬유증
- ③ 고환염
- ④ 고환발육부진

▶ 부고환 장애

- ① 임질 등에 의한 누종, 정맥류, 종창
- ② 정자 침습증
- ③ 부고환염

1) 해부학

✓ 정자

- ▶ 정자는 '남성의 생식세포'로서, '여성의 '난자'와 상대되는 생명의 근원'이다
- ▶ 남성이 사춘기(12 ~ 16세 전후)가 되면, 최초의 '몽정'이나 '사정'을 하게 되는데 이것은 '고환에서 성숙한 정자가 생산되고 있음을 의미' 한다
- ▶ 정자의 생산능력은, 사람에 따라 일정치 않으나, 20 ~ 28세에 절정에 달하고, 30세가 지나면 점차 감소한다. '발기와 사정'도 이 시기에 가장 왕성하다
- ▶ '1회의 사정'으로 '약 2억 마리의 정자'가 질내에 배출되며, 일시에 자궁을 향하여 헤엄쳐 올라가지만, 천신만고 끝에 난관에 도달한 정자 중에서, 난자와 만나 수정에 성공할 수 있는 정자는, '단 한 마리' 뿐이다

1) 해부학

✓ 정자의 구조

- ▶ 정자는 길이는 '50마이크로미터(1mm의 20분의 1)'이며, 현미경으로 보면 '작은 올챙이 모양'을 하고 있다
- ▶ 정소(고환)의 '정원세포'가 성숙한 정자로 완성되기까지의 기간은, '약 20일'이 걸리며, 정자는 '둥근 머리를 가진 몸체'에, '하나의 긴 꼬리'로 이루어져 있다. '꼬리는 전체길이의 약 90%를 차지'한다
- ▶ 정자의 머리부분에는 '염색체'가 들어 있으며, 염색체에는 후손에게 유전되는 '유전인자를 내포'하고 있다

1) 해부학

 정자

[출처]http://health.chosun.com/site/data/html_dir/2013/05/28/2013052803887.html

1) 해부학

✓ 정자

▶ 발생하기 쉬운 질병: 불임의 원인

- ① 기형정자 : 일반적으로 건강한 사람의 정자에도 약 10%의 기형 정자가 포함되어 있습니다. 만약 '기형 정자가 15%를 넘으면' '임신율이 떨어지게' 된다.
- ② 정자의 운동성 : 정자는 난자와 수정하기 위하여, 자궁 난관을 거쳐 '난관 팽대부'까지 헤엄쳐 올라가야 한다. 따라서 '정자의 운동성이 낮으면 임신율'이 떨어진다. 정자의 운동율은 80%이상을 정상범위로 보며, 정자 운동율의 계산법은 다음과 같다.

$$\text{운동율}(\%) = \frac{\text{활동정자수}}{(\text{활동정자수} + \text{비활동 정자수})} \times 100$$

- ③ 정자 사멸증 : '정액속의 정자가 죽어 있는 것'을 말한다.
- ④ 정자 감소증 : '정자수가 감소되어 있는 것'을 말한다.

1) 해부학

정액

- ▶ 정액은 'pH 7.5정도의 '약알카리성' 액체'로서, '고환, 부고환, 정낭, 전립선, 요도 등에서 나온 분비액'으로 되어 있으며, 정액속에는 정자가 섞여있고 '정자를 보호'한다
- ▶ 정액은 '단백질, 당분, 무기염류, 산소, 수액 등으로 구성'되어 있으며, 정자가 오래 생존할 수 있고, 활동하기에 적합한 환경을 제공 한다
- ▶ 정액은 수분이 많아서, 정자가 정관이나 요도를 통과할 때 '윤활액의 역할'을 한다
- ▶ 정자는 산성을 싫어하므로, pH 5.9이하의 산성에서는 사멸하게 되는데, 약산성인 질내에서 정자가 생존하는 비결은, '약 알카리성의 정액에 둘려 싸여있기 때문'이다

1) 해부학

정액

▶ 발생하기 쉬운 질병

- ① 무정액증 : 정액이 사정되지 않는 것
- ② 정액과소증 : 1회 사정액이 0.5ml 이하인 경우
- ③ 정자 감소증 : 정액 1ml에 정자수 2천만 이하인 경우
- ④ 정자 사멸증 : 정자가 죽어 있는 경우
- ⑤ 무정자증 : 정자가 없는 경우

1) 해부학

전립선(Prostate gland)

- ▶ 전립선은, 남자의 '방광 바로 밑에 밤톨만한 부드러운 조직'으로, 가운데 구멍이 뚫려 있어, 그 사이로 요도가 지나가므로, 전립선에 이상이 생기면, '배뇨이상'이 있을수 있고, 또한 '성기능 장애'도 일으킬 수가 있다.
- ▶ 전립선은 또한 정낭, 고환과 함께, 생식을 가능하게 하는 성부속기관 중의 하나이며, 정액의 액체 성분 중 약 35%는 전립선액 이다.

1) 해부학

전립선액의 기능

- 1) 정자에 '영양을 공급' 한다
- 2) (1)사정된 정액을 굳지 않게 하여, (2)정자의 운동성을 증진시켜, '정자의 수정 능력'을 높여준다
- 3) 알칼리성이므로, '나팔관의 강산성'을 중화시켜, 정자가 안전하게 나팔관을 지나, 난자와 만나 수정이 이루어지도록 돋는다.

1) 해부학

정관(Vas Deferens)

- ▶ 정관: ‘부고환과 정낭을 연결하는 관’, ‘정액이 지나가는 통로’
- ▶ 정관의 구조
 - 정관은 부고환에서 출발하여, 피하를 거쳐 배꼽을 향하여 상행하다가 배꼽 아래에서 방향을 바꾸어 방광 위를 돌아 정낭에 이르는 긴관이다. 길이가 ‘약 50cm’에 달한다.
- ▶ 발생하기 쉬운 질병: 정액이 통과하는데 방해
 - ① 정관 경화증
 - ② 염증에 의한 종창
 - ③ 염주상 결절

1) 해부학

정낭(Seminal Vesicle)

- ▶ 고환은 '정자의 생산공장'이고, 부고환이 '보관창고'라면, 정낭은 '사정할 때까지 머무는 대기실(정자주머니)'이다.
- ▶ 정낭은 '알카리성의 액체를 분비'하여, 정자를 콜로이드 막으로 싸서 보호하며, '정액의 농도를 조절' 한다.
- ▶ 발생하기 쉬운 질병
 - 정관에 염증이 생기면 '(1) 정낭종창' 및 '(2)정낭수종'이 발생한다

1) 해부학

요도(Urethra)

▶ 요도의 기능:

- (1) 평소에는 '소변이 나오는 통로'
- (2) 성교시에는 '정액의 통로'
- (3) '일정한 분비액(애액)'을 내어 '정액의 분량을 증가'시키는 작용

▶ 요도의 구조

- '방광에서 음경의 맨 끝까지 연결된 관'인데, 중간에서 사정관과 합류됨.
평상시의 길이는 16 ~ 18cm이고, 음경이 발기하면 3 ~ 4cm 더 길어진다.

▶ 발생하기 쉬운 질병: 요도는 위치상 각종 세균에 오염되기 쉽다

- ① 성병에 의한 염증 <임균성 및 비임균성 요도염>
- ② 요도폐쇄
- ③ 요도뇨증
- ④ 요도결석

2. 해부학

수업을 마치겠습니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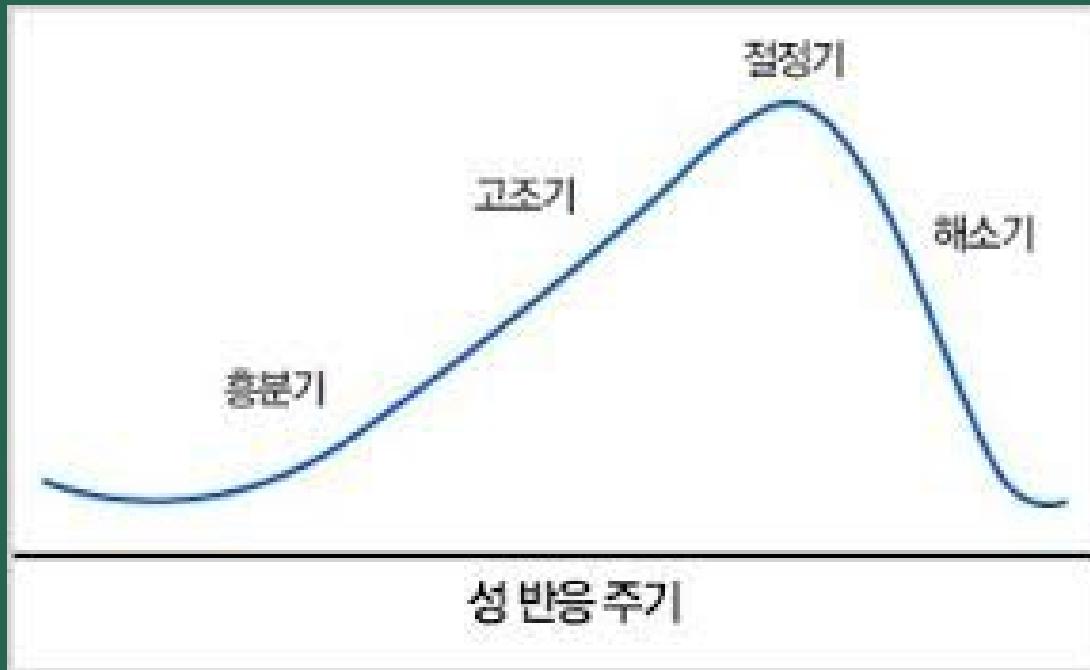
3. 성흥분기

- 1) 성흥분기
- 2) 남성과 여성의 에로티시즘 차이

1) 성흥분기

성반응의 4단계

- ▶ 성흥분기
- ▶ 성흥분정체기
- ▶ 오르가슴기
- ▶ 성흥분해체기



[출처]

<https://m.blog.naver.com/PostView.nhn?blogId=queens9199&logNo=40150740536&proxyReferer=https%3A%2F%2Fwww.google.com%2F>

1) 성홍분기

- ▶ 남성에서는 '음경의 발기'
- ▶ 여성에서는 '질의 윤활화'가 일어나는 시기: 질의 점액: '성적 자극이 있은 후 30초 이내에 질벽에서 분비되기 시작'함
- ▶ 혈관충혈, 근긴장, 심박수 증가, 혈압상승

1) 성홍분기

남성

- 강한 발기와 함께 고환크기확대
- 음낭의 탄력적 수축
- 요도를 통해 약간의 액체분비(윤활유) -> 삽입을 용이하게 함

1) 성홍분기

여성

- ▶ 특징: 국부적인 성기와 피부의 충혈, 근육의 긴장
(여성의 피부반응은, 남성에서 보다 현저하게 일어나 반점이 생긴다.)
- ▶ 유방이 부풀고, 유두가 발기(딱딱해짐)
- ▶ 성기 주변이 충혈->
 - 대음순은 양쪽으로 벌어짐
 - 음핵과 소음순도 단단해 지면서 두터워짐
→ 이 시기에 질 분비 증가 & 윤활화
- ▶ 자궁 상승, 질 확장

1) 성홍분기

성홍분 정체기

- ▶ 정체(Plateau) : 상승도 저하도 하지 않는 상태
- ▶ '성적홍분이 상승된 상태'를 유지해 가는 단계
- ▶ 약간만 자극하면 오르가슴에 도달할 수 있음

1) 성흥분기

성흥분 정체기

▶ 남성

- 100% 발기상태

▶ 여성-(1)

- 성기의 충혈이 최고조에 달함
- '소음순 팽창' 및 '짙은 와인색'으로 변함
- 질 입구 부근에 오르가슴대(Orgasmic Zone)를 형성: 질입구, 클리토리스, G-스팟

1) 성흉분기

성흉분 정체기

▶ 여성-(2)

- 자궁: 골반으로부터의 상승을 끝냄
- 질이 외측부의 1/3이 크게 부풀어오름
- 오르가슴의 직전에, 음핵은 180도 위를 향하고 편평해져, 치골 결합부 뒤로 위축함
- 남성과 달리 여성은, 오르가슴에 달하기 전, 후 두번의 성흉분정체기가 있음

1) 성흉분기

성흉분 정체기

▶ 여성-(3)

- 전정체기: 오르가슴에 달하기 전
- 후정체기
 - 오르가슴에 도달한 직후, 성흉분 해체기에 들어가려고 하는 상태, 후정체기의 지속상태가 있을 수 있음
(여성은, 오르가슴에 도달한 후의 흉분의 해체가, 서서히 일어나기 때문)

1) 성홍분기

성홍분 정체기

▶ 여성-(4)

- 오르가슴기의 전정체기이든, 후정체기 이든간에 여성은 성홍분이 정체기에 있는 한, 약간의 자극에 의하여, 매우 쉽게 오르가슴에 도달할 수 있는 체제로 구성되어 있음

1) 성홍분기

성홍분 절정기

- ▶ '오름가슴기'라고도 함
- ▶ 성감각 중 '최고의 쾌감을 느끼게 되는 단계'
- ▶ 남성 : '사정'과 동시에 오르가슴을 느낌
 - 방출단계 : 정낭에 정액이 가득차 사정을 하고싶은 느낌
 - 사출단계 : 전립선과 정관 끝부분, 음경 뿌리부분의 근육을 빠르게 수축시켜, 요도를 통해 정액과 정자를 분출

1) 성홍분기

성홍분 절정기

▶ 여성

- '질의 괈약근'과 '회음근' 및 '오르가슴대'가, 0.8초 간격으로 리드미컬한 수축이 일어남
- 이때 '음핵'에 대한 자극이 없으면, 오르가슴은 일어나지 않음
- 여성은 오르가슴 후에도, 아직 정체기에 있는 동안은, 몸이 피로해서 더 이상의 자극을 원하지 않을 때까지, 몇 번이고 자극에 반응하여 반복해서 오르가슴을 체험할 수 있음

1) 성홍분기

성홍분 해체기

- ▶ 성반응주기의 마지막 단계
- ▶ 여러가지 생리적 반응이 완만하게 평상 상태로 돌아감.
- ▶ 성적 자극에 대한 신체반응은 급속히 저하
- ▶ 성교에 의한 상승된 심박동수, 혈압, 호흡 등은, 오르가슴이 있는 수 분 후에 평상상태로 되돌아감

1) 성흉분기

성흉분 해체기

▶ 여성

- 오르가슴에 도달하고 나서, 음핵은 평상 상태로 되돌아감
- 오르가슴대도 신속히 사라짐
- 자궁: 골반의 원위치로 내려감
- 자궁경관: 정액이 고여있는 곳까지 하강하여 그 속에 잠기게 됨
- 소음순
 - 혈액이 성기부분에서 배제됨에 따라, 그 색채가 소실됨
- 질이 이완되어 평상 상태로 되돌아가는데, 10에서 15분이 걸림

2) 남성과 여성의 에로티시즘 차이

시각적 남성 & 후각적 여성

▶ 남성과 여성의 에로티시즘을 겨냥해 만들어진 '상업적인 상품'에서, 이 차이가 가장 뚜렷하게 드러난다

▶ 남성의 에로티시즘

- 포르노 잡지, 비디오 테이프
- 여성의 가슴, 힙 등 시각적 자극
- 노골적

2) 남성과 여성의 에로티시즘 차이

시각적 남성 & 후각적 여성

▶ 여성의 에로티시즘

- 애정 소설
- 로션, 향수, 음악 등 촉각적, 후각적, 청각적 자극
- 여성들은 남성에 비해 '냄새와 접촉'에 민감함

▶ 한 마디로 정리하자면,

- 남자의 에로티시즘은 보다 '시각적'이고 '생식욕구'로 가득 차 있는 데 반해, 여자의 에로티시즘은 보다 '촉각적'이고 '후각적'이고 '청각적'이다.

2) 남성과 여성의 에로티시즘 차이

끊어지는 애정 & 지속적인 애정-(1)

▶ 남성-1

- 성행위가 끝나면 흥미를 잃게 됨
- 남자는, 여자를 만나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, 영화를 보고 가볍게 술한잔을 후에, 성행위로 옮겨가 절정을 맛보는 일련의 과정의 만남을 원함
- 성행위는, 상대의 모든 것을 알게 되는 절정의 단계 라고 생각

2) 남성과 여성의 에로티시즘 차이

끊어지는 애정 & 지속적인 애정-(2)

▶ 남성-2

- 남성의 에로티시즘은, 한 단계 한 단계 진전되면서 긴장감이 고조되고, 한 단계가 넘어 갈 때마다 긴장감이 줄면서, ‘성취감과 비슷한 만족’을 느끼는 것이 특징
- 이러한 긴장의 최대 정점은, ‘성행위’에 맞추어져 있고, 성행위 후에는 상대방에 대한 긴장감과 흥미도 사라짐
- 남자의 에로티시즘은 단순하며, 여성과 비교 했을 때에도 허풍처럼 느껴짐

2) 남성과 여성의 에로티시즘 차이

끊어지는 애정 & 지속적인 애정-(3)

▶ 여성-1

- 여성의 에로티시즘의 진행은, 남성과는 사뭇 다름
- 여성의 에로티시즘은 '지속적'이고, 상대와 절정을 맞본 뒤에도, '함께 있고 싶다는 느낌'에 사로잡하게 됨
 - 그것은 여자의 절정이, 남자에 비해 오랜시간 지속되기 때문이기도 하지만, 그에게 사랑 받는 시간을 좀더 오래 갖고 싶다는 갈망이, 여성에서 강하기 때문

2) 남성과 여성의 에로티시즘 차이

✓ 끊어지는 애정 & 지속적인 애정-(4)

▶ 여성-2

- 섹스보다는 가벼운 포옹서, 더 큰 기쁨을 느낌
→ 안긴 채로 언제까지라도 있고싶고, 자신에게 관심을 지속적으로 가져달라는,
사랑이 계속되기를 바라는 강한 욕구의 표현
- 여성의 에로티시즘이 지속적이라는 것은, 남자가 볼 때 매력적이지만,
동시에 남성에게는 불안을 일으키기도 함
- 여성의 에로티시즘에도 탈진이 나타나게 되는데
→ 탈진은 여성의 욕망을 다시 자극하기도 함

2) 남성과 여성의 에로티시즘 차이

끊어지는 애정 & 지속적인 애정-(5)

- 남자에게 사랑의 불꽃을 피우게 하고, 추억과 향수병이 되어 언제까지라도 계속 될 욕망을, 남자의 마음 속에 불어넣는 것이, ‘여자들의 에로티시즘의 목적지’이다

그러므로 여성의 애정은 지금 시작된다고 하더라도,
그 종착점은 항상 미래에 있다.

3. 성홍분기

3교시 수업을 마치겠습니다.